



“치킨 한 마리 시켜 먹는 것도 부담스러워요”

고물가 속 대형마트 ‘초저가 치킨’ 인기
홈플러스 이어 이마트·롯데마트도 출시
가성비·맛 모두 잡아 ‘오픈 런’ 현상도

‘한 통에 6천990원’ 수박 이야기가 아니다. 치킨 이야기다.

고물가 시대 홈플러스 ‘당당치킨’을 시작으로 대형마트들이 한 마리에 만원도 안되는 가격의 치킨을 잇따라 선보이면서 치솟는 프랜차이즈 치킨 가격에 부담스러워하던 시민들이 반색하고 있다.

25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현재 홈플러스·롯데마트·이마트는 각각 초저가 치킨 제품 라인을 출시, 판매하고 있다.

홈플러스가 지난 6월30일 물가 안정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프라이드 기준 6천990원의 ‘당당치킨’을 선보인 데 이어, 이마트가 지난달 초 1통에 9천980원인 ‘5분 치킨’, 롯데마트도 1.5마리 짜리 ‘New 한통 가야아득 치킨’(한통치킨)을 1만5천800원에 내놓았다.

특히 선두주자인 홈플러스의 당당치킨은 6월30일 판매 시작 후 지난 20일 기준 40만 마리가 넘게 팔릴 정도로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다.

앞서 이마트도 저렴한 가격에 할인행사까지 더해지면서 지난 7월 이마트 델

리 치킨 매출이 지난해 동월 대비 26% 늘었다.

현재 광주에선 ▲이마트 광주점·봉선점 ▲롯데마트 첨단점·수완점·월드컵점 ▲홈플러스 동광주점·하남점·계림점 등이 초저가 치킨을 판매하고 있다.

특히 가장 먼저 대형마트 치킨 전쟁의 서막을 알린 홈플러스의 당당치킨 제품은 없어서 못팔 정도의 인기몰이 중이다.

실제 홈플러스 동광주점의 경우 하루 5차례에 걸쳐 치킨 100마리 정도를 한정 판매하는데, ‘오픈 런’(구매를 위해 매장이 열리자마자 달리는 현상)까지 펼쳐지고 있다.

이처럼 대형마트 초저가 치킨이 각광받는 이유는 프랜차이즈 치킨 가격 상승에 소비자 불만이 쌓일 대로 쌓였기 때문이라는 게 중론이다.

지난 5월을 기점으로 BHC·교촌에 이어 BBQ까지 원·부자제 가격 상승을 이유로 전 메뉴 2천원 가격 인상을 단행, 치킨 2만원 시대를 열었다. 배달비와 사이드 메뉴·음료 값을 합치면 3만원 안팎의 가



인기 많은 대형마트 치킨

고물가 속에 대형마트의 저렴한 치킨이 인기를 끌고 있는 가운데 25일 광주서구 이마트 광주점에서 마리당 9천980원에 선보이는 ‘5분 치킨’이 판매되고 있다. /김예리기자

격이다. 시민들의 대표 외식 메뉴인 치킨 주문도 부담스러운 시대가 됐다.

가격 인상에 앞서 치킨 프랜차이즈 업체인 제네시스BBQ 윤홍근 회장의 발언도 소비자들의 반발을 샀다.

그는 지난 3월 한 라디오방송에 출연해 “치킨값이 2만원이 아닌 3만원은 돼야 한다”고 발언하면서 민심에 불을 질렀다. 이에 소비자들은 불매 운동까지 벌이는 등 반발 여론이 거세졌다.

이와 함께 천정부지로 치솟는 물가가 겹쳐 지갑 사정이 여의치 않은 시민들의 소비 심리가 대형마트 초저가 치킨으로 향하고 있는 분위기다. ▶2면에 계속 /양서원기자

기준금리 2.25→2.50%
사상 첫 ‘4회 연속’ 인상

한국은행이 치솟는 물가와 원/달러 환율 등을 고려해 사상 처음 네 차례 연속으로 기준금리를 올렸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이하 금통위)는 25일 오전 9시부터 열린 통화정책방향 회의에서 연 2.25%인 기준금리를 2.50%로 0.25%p 인상했다. ▶관련기사 13면

금통위는 통화정책방향의 결론에서 국내 경기에 대해 “앞으로 수출 증가세가 낮아지면서 올해와 내년 성장률이 5월 전망치(2.7%·2.4%)를 하회하는 2.6%·2.1%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물가와 관련해서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국제 유가 하락의 영향으로 낮아질 수 있겠지만, 근원물가(에너지·식품류 제외) 오름세가 이어지면서 상당 기간 5~6%대의 높은 수준을 지속할 것”이라며 “올해와 내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5월 전망치(4.5%·2.9%)를 크게 상회하는 5.2%·3.7%로 예상된다”고 분석했다.

앞서 금통위는 아홉 번의 동결을 거쳐 지난해 8월 26일 15개월 만에 기준금리를 0.25%p 올리면서 이른바 ‘통화정책 정상화’의 시작을 알렸다. 기준금리는 이후 같은 해 11월과 올해 1월, 4월, 5월, 7월에 이어 이날까지 약 1년 사이 0.25%p씩 여섯 차례, 0.50%p 한 차례, 모두 2.00%p 높아졌다.

이날 금통위가 기준금리를 0.25%p 올리면서 한국(2.50%)과 미국(2.25~2.50%)의 기준금리 상단이 같아졌지만, 다음 달 미국 연준이 최소 빅 스텝(한꺼번에 기준금리 0.5%p 인상)을 밟을 가능성이 큰 만큼 곧 미국 우위로 다시 뒤집힐 전망이다. /연합뉴스

농식품 기후변화대응센터 조성 ‘본궤도’

총 사업비 500억...기재부 예타 최종 통과 내년 착공

해남 농식품 기후변화대응센터 조성 사업이 본궤도에 오를 전망이다. 전남도는 25일 “지난해 유치한 ‘농식품 기후변화대응센터 조성사업’이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 최종 통과해 2023년 착공한다”고 밝혔다.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이고, 국비 300억원 이상이 지원되는 신규 사업은 기재부에서 예비타당성사업과 조사(한국조세재정연구원)를 수행한다.

해남 삼산면에 들어설 ‘농식품 기후변화대응센터 조성사업’이 이번에 예타를 조기 통과함에 따라 2023년 기본·실시 설계비 21억원(국비)이 반영돼 내년부터 공사에 들어가 2026년부터 본격 운영할 수 있게 됐다.

‘농식품 기후변화대응센터’는 지자체마다 차이가 있는 미세한 기상변화 대응, 산물의 재배 적기 점검, 병충해의 효과적 방제, 예측하기 어려운 기상재해 대비 등 지속가능한 환경친화적 농업으로의 이행을 위한 정책과 연구 지원을 총괄한다.

또한 ‘2050 국가 탄소중립 시나리오’에 따라 감축하기로 결정된 농업 분야 온실가스 배출량 관리 등 재생에너지원 확충을 위한 정책 지원 역할도 한다.

센터는 기후변화 대응 정책지원 역할 및 농가 대상 맞춤형 정보를 제공할 본관동 1동과 첨단 인프라 시설을 임대할 첨단인프라부 1동으로 건립된다.

본관동 1동은 정책지원부, 기후데이터부, 홍보관으로, 첨단인프라부 1동은 육외

기상환경 조절시설(SPAR) 연구동, 인공기상동, 이상기후연구동으로 구성한다.

정책지원부는 기후변화대응 컨트롤타워로서 기술수요 발굴, 개발된 기술 정책화 방안, 정책이행 평가 등 의사 결정을 지원하고, 기후데이터부는 기후변화 데이터 플랫폼으로서 데이터 생성·활용, 연구정보 제공 등을 수행한다. 첨단인프라부는 미래 기후변화 시나리오 재현이 가능한 연구환경을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이번 예비타당성조사 통과로 경제성 측면에서는 생산 유발효과 8천722억원, 부가가치 유발효과 3천896억원, 취업 유발효과 1만426명, 고용 유발효과 7천445명 등이 예상된다.

정책성 측면에서 농가는 기후변화 관련 정보를 활용한 다양한 의사 결정 지원을 받음으로써 기후변화에 따른 불확

실성을 최소화해 생산성을 높이는 효과가 기대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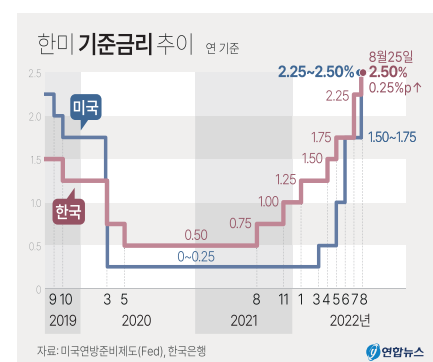
또한 첨단인프라를 활용한 농업부문 연구개발(R&D) 지원, 농업연구단지 테스트베드 제공, 학계 협업을 통한 대규모 검증으로 기후변화 관련 연구의 질적 향상 등 기후변화 대응 정책·연구시설 집적화를 통한 일원화된 지원체계 구축 효과가 예상된다.

명현관 해남군수는 “농식품 기후변화대응센터가 차질없이 가동할 수 있도록

향후 사업 추진 일정에도 만전을 기해 지원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영록 지사는 “농식품 기후변화대응센터 조성사업은 전남도의 민선 7기 공약으로 도가 정부에 최초 제안해 사업을 유지하고 조기 예타 통과 성과를 이뤘다”며 “이번 예타 통과를 농생명산업 중심지인 전남이 대한민국 기후변화 대응 농업 선진국으로 도약하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재정기자

| 변호사 영입인사 | 변호사 개업인사 |
|---|---|
| 지역민의 성원 속에 날로 성장을 거듭해 온 저희 「법무법인 강동으로」는, 이번엔 서울남부지방법원검찰청 검사장을 역임한 송상현 변호사와 서울동부지검 부장 검사장을 역임한 안형준 변호사를 영입하였습니다. | 법무법인 강동으로의 대표변호사로 새 출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쌓아온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고객 중심의 법률서비스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 의뢰인께 감동을 드리는 최상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저를 출발할 때의 약속을 지켜와 주시고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 2022. 8. 26. |
| 2022. 8. 26. | <p>▶ 송상현 주요 약력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순천고등학교 졸업 · 광주지검 부장검사 · 대검찰청 검사장 · 서울남부지검 검사장 |
| 대표변호사 송기서 · 장경희 · 이상길 | <p>▶ 안형준 주요 약력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경문고등학교 졸업 · 광주지검 검사 |



Today

김경수의 광주땀 ‘최초’ 이야기 5면

유류 원산지 위반 단속 강화 절실 6면

박계영의 몸에 좋은 제철음식 14면

IFLA WORLD CONGRESS
GWANGJU 2022
AUG. 31 - SEP. 2, 2022
Gwangju, Korea
www.ifla2022korea.com
#ifla2022
RE: PUBLIC LANDSCAPE
GJTO 광주관광재단